

□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의견

- 위키독스 교재에서 폰트 사이즈 및 색상 등이 대부분 일정하여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강조할 부분 등을 다른 색상 및 볼드 처리하여 가독성 있는 디자인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교재의 본문 내에서 제목 및 소제목이 초반에는 한글(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2장부터는 영문으로만 표기되어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장의 사례 제시에서 문헌마다 같은 형식으로 XML 구조의 활용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장의 각 사례마다 다른 내용의 목차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학습자로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사례로부터 어떤 부분이 XML 구조를 활용하여 디지털 데이터로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활용한 장점은 무엇인지가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 교재 내용의 일부는 기존 W3C 등의 웹사이트에서 그대로 콘텐츠를 가져온 것과 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퍼런스를 추가하거나 교재의 형식에 맞게 내용을 수정,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 유튜브의 교육 영상도 하나의 교육과정에서 운영된다면 각 장별로 같은 형식의 포맷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PPT 자료의 형식 및 내용 구조의 통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 전반적으로 실습에 대한 콘텐츠가 부족하게 보입니다. XML 코딩은 이론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 수업에서 교수자가 어떻게 실습을 이끌어 나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본 교재가 기존에 출판되었던 XML 관련 교재와 차이점이 있으면서 고문헌을 위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실제 고문헌의 데이터에서 어떻게 XML을 다룰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시된 교재 및 교육 영상의 초반부는 기존에 출판된 XML 관련 웹사이트의 내용 및 교재와 차이점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교재 및 영상의 각 장에서 고문헌의 실제 내용을 테스트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실습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 특히 1, 2장에서는 각 내용에서 학습자가 실습을 통해 XML 문장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3장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설명에서는 앞에서 학습한 XML 구조가 실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실습 문제 등을 추가하여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연구진들이 제시한 고문헌 데이터의 설계를 위한 모델 분석과 교육 콘텐츠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의견

이 연구는 XML을 활용한 고문헌 데이터 구축 및 설계 방법론을 제시하고,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한국문집총간 등 기구축된 고문헌 데이터의 설계를 검토한 것입니다. 기계가독형 데이터의 필요성과 구축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문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과 저장, 공유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고안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인문 데이터를 XML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고려하여 교육 콘텐츠 학습자가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문헌 데이터를 다루면서도 국제 표준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해 분량을 할애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 또한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고문헌 데이터를 XML로 변환하는 과정을 이만큼 자세히, 또 구체적으로 제시한 콘텐츠가 이전에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본 연구 성과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물인 교재와 동영상은 비전문가부터 준전문가까지 다양한 타겟이 상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결과물의 서두에도 “디지털 인문학에 처음 발을 담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적고 있음) 이때 비전문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자료가 추가된다면 보다 실용적인 교육 콘텐츠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XML이나 TEI에 대한 툴킷을 후속 연구로 추가 개발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연구자와 학생들이 디지털 인문학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 표준과의 호환성 및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고문헌 데이터 설계 및 구축의 결과물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자들에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동영상 콘텐츠와 교재를 웹에 배포함으로써 공유와 확산의 정신을 실천하는 연구라는 점에 존경과 감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형식의 교육 콘텐츠 개발이 이어져 디지털 인문학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의견

이 연구는 고문헌 자료에 대한 디지털 전산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XML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교육, 보급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고문헌 자료의 디지털화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점차 고문헌 자료가 가지는 텍스트 처리와 분석 등을 위해 정밀한 수준의 마크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에서 소개, 보급하고 있는 XML 기반의 고문헌 자료 전산화는 매우 요긴한 과제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연구책임자는 XML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한 고문헌의 전산화, 정보화를 위해 여러 요소 등을 실제 다양한 고문헌 사례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정의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특히 이를 강의와 교육 등에 잘 활용함으로써 디지털인문학 후속 인재의 양성에도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향후 관련된 연구와 교육이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디지털인문학이 보다 많은 성과를 산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